

다시 푸는 경서

법구경

니원품(泥洹品) ①

忍爲最自守 인위최자수
泥洹佛稱上 이원불칭상
捨家不成就 사가불법계
愍心無所害 식심무소해

眞人歸滅 진인귀멸

사람들은 들을 의지하고
새들은 허공을 의지한다
모든 법은 그 보응으로 돌아가고
진인은 적멸에 귀의한다

인욕이 제 몸 지키는데 으뜸이고
열반은 최상이라 부처님 말씀했네
집 버리고 계를 받들어 법하지 않으면
마음 쉬어 수행에 해되는 것 없으리

始無如不 시무여불
始不如無 시불여무
是爲無得 시위무득
亦無有患 역무유사

시작은 시작 아니함만 못하고
시작은 시작 없음만 같지 못하다
이것이 얻을 것 없음이 되나니
또한 어떤 사랑분별도 없다

心難見習可觀 심난견습가도
覺欲者乃眞兒 각욕자내구견
無所樂爲苦際 무소락위고재
在愛欲爲增痛 재애욕위증통

마음은 보기 어려우나 익히면 볼 수 있다.
욕심을 깨달은 이는 바른 견해 갖추어
즐거워함 없음에 괴로움은 사라진다

無病最利 무병최리
知足最富 지족최부
厚爲最友 후위최우
泥洹最快 니원최쾌

병 없는게 수행에 가장 이롭고
족함을 아는게 가장 넉넉하며
후덕을 가장 좋은 벗으로 삼으면
열반이 가장 쾌적한 일이다

飢爲大病 기위대병
行爲最苦 행위최고
已識知此 이제지차
泥洹最樂 니원최락

애욕에 머물면 고통만 늘어나고
모든것 버리면 모든것을 얻는다

靚주림은 큰 병이 되고
지어함은 가장 괴로운 것이 되니
이미 이것을 분명히 알면
열반이 가장 즐거운 것이다

애욕에 머물면 고통만 늘어나다

明不淨淨能御 명불정능어
無所近爲苦際 무소근위고재
見有見期有關 견유견문유문
念有念議有議 염유염식유식

마음이 혼탁한 것 밝게 알면 제어할 수 있고
가까이 할 경계 없으면 괴로움 벗어난다
보니 보이는 게 있고 들으니 들리는 게 있다
생각하니 생각이 있고 의식하니 의식있다

바른 길 가는 이는 적고
나쁜 길 가는 이는 많다
이것을 그대로 분명히 알면
열반이 가장 편안한 것이다.

從因生善 종인생선
從因生惡 종인타악
由因泥洹 유인이원
所緣亦然 소연역연

인따라 좋은 곳에 나고
인따라 나쁜 곳에 떨어지며
인으로 말미암아 열반에도 이른다
연에 따르는 것이 또한 그러하다

보되 집착하게는 없으면 의식이 없다
모든 것 버리면 모든 것을 얻는다
몸·생각 있으며 오가는 경계 여의고
식이 다하면 괴로움도 끝난다

麤鹿依野 미록의야
鳥依虛空 조의허공
法歸其報 법귀기보

龍眼

큰스님 수행한담

“마음 편히 살고 싶으면

보성스님 (태고종 종정)

며칠 전에 소신(燒身)열반하신 총담스님 대비식에 다녀왔습니다. 그날 아직 불이 꺼지지 않은 소신공양 올린 그 자리를 보고 감격스러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말이 그렇지만 자신을 불태우는 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생(生)에 욕심없는 사람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신은 누구나 할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총담스님은 능히 해냈던 것입니다.

사람은 마지막 관후경을 받아봐야 안다고도 하고, 살아가면서 만날 때보다 헤어질 때 잘해야 합니다. 사실 총담스님은 일반에 그렇게 알려지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생의 마지막을 스스로 보람있게 보낸 것입니다. 3년여전 총담스님이 <정토삼부경>을 엮어 <염불>이라는 책을 낸다고 권두언을 부탁해 썼던 생각이 납니다. 그때 나는 시(詩)로 썼는데 이 생에서만이 아니라 세세로 범공양했으니 내생에는 극락세계에 갈 것이라고 했지요. 확실히 수행하신 분이 다름니다. 실력이 아니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거든요. 총담스님은 말없는 가운데 후세에 좋은 교훈을 몸소 남기신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과연 나는 어떤가 하고 스스로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15세면 입신(立身)한다고 합니다. 철들려 한다는 것인데 그렇게 보면 나는 80년 세상사를 입신 이후 봐 왔습니다. 내 생애만을 반추해 봐도 우리 역사는 어려운 때가 많았습니. 일제때 수한 격동의 세월을 보냈고 해방후 6.25 전쟁을 겪는 등 구비구비 굴곡이 생겼고 지금도 경제난이라는 어려움속에 있습니다. 역사는 절대 평안치 않습니다.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어 파도치는 것과 같은 것이 역사입니다. 그때마다 즐거움이란 도 수난과 고통이란 가장 많이 겪어야 했던 것이 국민입니다. 그러나 그냥 한탄만 하고 좌절해 있어서는 안됩니다. 특히 인과도리를 믿고 따르는 불자들이라면 더욱 더 그렇습니다. 우리의 위기는 과거에서 비롯됐다고 알아차려야 하는 거거든요. 또 이때 잘해야 미래가 평안하게 돌아온다 말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주권을 빼앗겼던 암울한 일제때도 이겨내고 극복했거든요. 다시 살려하는 민족주의 애국자들의 용기로 역사를 살게했습니다. 정치인 학생 부녀자 할 것 없이 각계각층의 노력이 원동력이 됐던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의 힘이 되어야 할 것도 바로 국민 모두의 용솨음치는 기운한 용기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우리를 어려움에서 이겨내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남들보다 비교적 긴 생을 사는데 나는 8.15해방을 맞았던 그 순간을 가장 행복하고 감격적인 순간으로 기억합니다. 또 그만큼 주권없던 그 시절이 가장 가슴 아팠습니다. 1945년 당시 나는 경기상고 교사였는데 한창 전쟁중이라 학생들은 수도 없이 근로봉사에 동원됐지요. 광복절 그날도 여느때처럼 학생들 2개반을 인솔해 문산에 있는 철도공사장에서 근로봉사를 하고있는데 해방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즉시 연장들을 잡어던지고 학생들과 함께 즉석에서 창호지에 태극기를 그려서 “대한독립만세”를 소리치며 흔들며 났습니다. 어쩌나 좋던지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맞이한 해방이요 광복인데 다시



- 1906년 함남 이원 생
17년 강원도 건봉사사 김보련 스님 은사로 득도
28년 건봉사 보안강원 대교과 졸업
31년 중앙불교전문학교 졸업
31년 박한영스님 계사로 비구계 및 보살계 수지
40년 동경 일본대학 종교과 졸업
43년 일본대 사학과 졸업
59년 숙명여대 문리대학장
61년 통국대총장
62년 광동학원 이사장
79년 태고종 제12세 종정 역임
94년~현재 태고종 제 15세 종정
現 원주 보림사에 주석

“불교가 흥하면 나라 절로 밝아지니
먼저 가정에서 가르침 실천하고
이웃에게 부처님법 전해야해요”

분단되고 말았으니....
요즘 북한의 금강산을 방문할 수 있다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향민이든 아니든 국민 모두가 갈 수 없는 상황보다는 좋은 일입니다. 또 나로서는 금강산으로 출가해 수차례 금강산 전역을 돌아보고 수행했던 이력도 있어 반갑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깊이있게 들여다 보면, 단순히 들떠 있을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남한 사람을 대상으로 우리만 북한의 금강산을 왔다갔다 하는 것은 참 의미가 덜하다고 봅니다. 심하게

말하면 관광의 연장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북한 동포도 설악산이 됐던 지리산이 됐던 우리의 마찬가지로 왔다 갔다 해야 진정한 참 교류가 된다 이말입니다. 물론 북한의 우리당을 봐야한다는 의미를 담은 일이라는 합리적이지만, 요즘 세태가 워낙 들뜨고 실하지 않아 그런현실의 확대라면 안된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생활은 좀더 많이 차분해야 합니다. 깊이와 넓이를 더하는 진한 삶을 귀하게 여기는 의식들이 절실하게 요구됩니다.
오늘날 한국불교계는 매우 침체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종파

가 50여종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 모아지면 살고 흩어지면 사라집니다. 그런데 불교계는 모두 제각각이라는 것입니다.

일본 예를 들어 안됐습디다만, 불교가 성행하는 나라라 살펴본다면 일본은 13종 58파입니다. 종단은 종지와 종풍이 달라 어릴 수 없이 13개로 갈라진 것이고, 58개나 되는 파(派)는 진리를 심화시키기 위한 '발전적인 세분화'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현실은 다릅니다. 종단마다 종지 종풍이 같은 데도 불구하고 사람만 갈라진 종단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타까울 수가 없어요. 마치 정치가 '1인 1당'으로 우후죽순 난립하듯 한국불교 종단이 '1인 1종단' 격이라는 것입니다. 분열이고 욕심의 확장일 뿐입니다. 결국에 가서는 안화되는 길밖에 없습니다. 북한의 김일성도 1인자 자리를 양보 안하고 죽었고 후계자 김정일 역시 우두머리 되려고 자리를 쥐고 다투는 힘을 다하고 있는 것을 탄산지석으

불·자·들·의·필·독·잡·지
불교와 문화
BUDDHISM & CULTURE

1998년 여름 호 제 6호 (통권 26호)



지상중계 / 불교방송 교리강좌 회향법회
박성배 교수에게 듣는다 ③
불교, 어떻게 믿고 닦을 것인가

킬리보 / 사진으로 보는 성보기행 ⑥
북장물에 담긴 서원

불교계전단 ④ / 우리의 교단체계, 이대로 좋은가
조계종의 교단체도와 운영의 문제
한국불교의 교단체계와 세계불교국가의 예
조계종 제도개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문화평 / 음악(교성곡 용성)
미술(정비파 석굴암 판화전)

인터넷 불교 / 달마가 인터넷에 간 까닭은?

불교문화의 현장 / 팔만대장경 주제음악 발표회

현대인을 위한 새로운 수행법
'아빠타' 프로그램과 사람이 사는 길

산寺古談 ② / 부처님의 손길처럼 떠스한
성철 큰스님

특집
세태분석 / 미스터리에 대한 불교적 해석

환생, 귀신, 불가사의한 체험에 대한 불교적 해석
불자로서 풍수사상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길
수백 불! 미신인가, 과학인가
점과 사주에 대한 불교적 해석

특별기획 / 세계의 사상가와 불교 ④
동서양의 정신세계를 넘나든 보르헤스
그의 삶, 그리고 불교와 포스트모더니즘을 조명하고
주요한 작품 몇 편을 소개한다

세계의 불교
싱가폴 불교의 현황- 윤희의 길, 인간의 길

한국의 미 ④ / 한국의 종이(韓紙)

생명과 불교 / 뇌사, 장기이식에 대한 불교의 비판

생태담사기 / 생태적 관점에서 본 능가산 개암사

고전산책 / 백파 스님과 추사 김정희의 對論

박한영의 수필 한 편과 편지글(추사의 露白坡書)

발굴 / 홍인표 거사의 임불왕생법

정토경, 논, 집 / 약사여래, 지장보살

한국불교의 현황을 집대성한

『한국불교총람』 1998년판 발행



주요내용

- 1) 한국불교의 현황: 최근의 한국불교계 흐름을 악습
2) 종단: 불교종단 50여곳의 현황을 수록
3) 법인: 불교관련 법인 150여곳의 현황을 수록
4) 불교단체 / 기관: 불교단체 및 기관 4,000여곳의 현황을 수록
- 신행: 포교(사암연합회, 신행단체)
- 청년: 학생(전국단위 청년단체 및 학생연합회)
- 교육: 연수(학교, 유치원, 재가교육기관, 승가교육기관, 연수기관)
- 언론: 출판(방송, 신문, 잡지, 출판사, 학술지)
- 학술: 문화(학술, 연구, 문화, 예술기관 및 단체)
- 사회: 복지(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5) 불교관련단체: 불교관련 업체 1,000여곳의 현황을 수록
6) 사찰: 국내의 사찰, 포교당 13,000여곳의 목록을 수록
7) 인명: 승가 및 재가불자 2,500여명의 개인 인명자료를 수록
8) 불교문화재: 초판 이후 추가 지정된 200여건의 불교관련 문화재 목록을 수록
9) 불교도서논: 초판 이후 간행된 3,200여건의 불교관련 단행본 및 박사학위논문 목록을 수록
10) 한국불교연표: 초판 이후 한국불교관련 사건을 수록

4x6배판 / 1144쪽 / 양장제본 / 정가 120,000원

보급문의: 02-719-2607